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마

1.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¹⁾

성경말씀: 시119:97-104

그리스도인들에게 쓸데없는 스트레스와 혼란을 가져다주는 많은 문제들 중 가장 높은 순위

‘하나님의 뜻과 인도’,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다. 어떻게 결정할까? 바르게 결정할까?

심성이 약한 분들, 강열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 오도된 분들

OO 전도단, 하나님의 말씀 듣기 훈련 및 연습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피터 블룸필드, 성서유니온선교회

성도들의 고민과 스트레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데도”(시23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알 수 있던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신단 말인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 139:9-10). 하지만 이 말 또한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

“로그인’만 하면 하늘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대화방을 개설해 놓으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그들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에 대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특정한 단계들이 있단 말인가?”

“만약에 그러한 단계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공식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롬8:14).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어찌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는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원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가지는 직업,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내가 하는 역할,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들 앞에서 다소 위축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 준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픈 열망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괴롭힌다.

“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을 그토록 힘들어하는가?”

왜 이것으로 인해 그토록 불안해하는가?

이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과 기대가 문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바른 관점, 잘못된 관점을 버려야 함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잘못된 관점

이 관점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다.

이 경우 하나님의 인도란, 그와 같은 계획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와 같은 계획이 존재한다면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계획이 있다면 매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언제나 한 가지 결과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

1)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에서 발췌, 피터 블룸필드, 성서유니온선교회

모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 '완벽한 계획'은 단 하나밖에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중 결혼

1. 하나님의 계획에는 단 한 사람의 배우자가 내정되어 있으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신중하게 '찾아내야'만 한다. 2. 그렇게 되면 의사 결정은 수수께끼 풀기가 되어 버린다. 3. 모두가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라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쓰는 '형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4. 이것의 가정은, 하나님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찾아서 서로 맞출 수 있는 단서와 암시들을 흘리신다는 것
이러한 관점의 문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란 것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은 그러한 태도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매우 주관적이다.

1. 오늘 어떤 신발을 신을까? 2.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3. 오늘 당신이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은?
4. 당신이 가야 할 휴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무엇인가? 5. 일터에 자가용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기차나 택시를 타야 하는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모든 결정이 그 계획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일관되게 매사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의사결정에 대한 그와 같은 관점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 상식과 개인적 기호에 기초해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면 종교적인 주문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하도록 나는 인도(계시)를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잘못된 관점의 예

함께 첫날을 보내게 된 아담과 이브, 죄가 없었기에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담과 이브의 저녁식사, 아담은 집으로 가면서 나무에서 요리 재료들을 따갔다.

이브의 문제: 자신이 맡은 임무가 너무도 막중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도 많은 결정

1. 갓 결혼한 이브는 초반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놓치고 싶지 않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아담에게 부탁. "저녁 식사로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어봐 주세요."
2. 아담의 기도,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 주시는 계시가 없네. 저녁식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의 열매든 다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 말이요." 아담은 자신이 금지된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지 않았다고 이브를 안심시켜 주었다.
3. 이브는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식사 준비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몹시 배가 고픈 아담은 아삭아삭하고 빨간 사과가 아주 맛있어 보여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에 정말로 화평이 느껴지는데, 아마도 사과를 먹도록 인도를 받는 것 같소."
3. 이브는 사과를 먹는 데에 순순히 동의했고 자신에게도 아담과 같은 '화평'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사과를 먹기로 한 결정이 이브에게 새로운 문제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아담, 이 사과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밀까요, 깍둑썰기를 할까요, 으깬까요, 파이 안에 넣어 구울까요, 아니면 사과파이나, 튀김이나, 푸딩을 만들까요, 아니면 사과 파이를 만들까요, 아니면 그냥 날 것으로 먹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기꺼이 받기를 원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 주겠어요?"
4. 다시 한 번 기도를 하고 나서 아담은 말했다. "마찬가지의 대답을 받았어. '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의 열매든 다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곰곰이 생각을 해 본 아담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 봐요, 이브, 주께서는 그 말씀만으로도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확신하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을 우리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짐승들의 이름을 붙인 것처럼 말이요.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

4. 이브는 충격을 받았지만 안심이 되었다. “우리가 이 과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저녁식사로 먹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실행하기 전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모든 세부사항을 구석구석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5. 그 뒤 그들은 함께 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과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경건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과일 샐러드를 먹자!”

잘못된 관점의 문제: 이브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단 하나의 올바른 선택을 찾아다니는 신비로운 여행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브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범위한 자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은 동그라미 안에 찍혀 있는 자그마한 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대한 강과 같다. 그 가능성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백 혹은 수천 가지의 대안적 선택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유를 감당하지 못한다.

충격적인 진실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폭넓은 자유보다는 끝도 없는 규칙들을 더 편안하게 여긴다. 그들은 지혜보다는 미성숙을 선호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아기처럼 자신들에게 손가락으로 떠먹여 주기를 원한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알려주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성인처럼 다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넓은 원칙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타당한 결정들 중에서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바라신다.

올바른 관점

어떤 특정한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 것인지를 묻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서로 완벽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그와 같은 구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된 것이 있고 아직 계시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

| | |
|-----------------|--------------|
| ↙ | ↘ |
| 계시된 뜻 | 숨겨진 뜻 |
| 하나님의 명령 | 하나님의 계획 |
| 도덕적 뜻 | 주권적 뜻 |
| 교훈 | 섭리 |
|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 | (앞으로 일어날 일들) |

하나님의 계시된 뜻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뜻 혹은 하나님의 교훈적 뜻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서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설명해 준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 우리가 일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눕고,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모든 것 - 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모든 윤리적 원칙들이 들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알려 주셨다. 그 뜻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성경66권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십계명에 그 개요가 들어가 있으며(출20장), 더 요약해서 두 개의 주요 원칙으로도 주셨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22:36-40).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 은밀한 뜻, 혹은 언약적 뜻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정하신 모든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령적 뜻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뜻은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다. 그 청사진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까지 포함해서 - 다 들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적 맹세를 성취해 가시는 동안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 하실지가 다 들어 있다.

이 은밀하고 숨겨진 뜻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천사들이 자유롭게 내린 결정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그 뜻을 알 수 있다

- a. 내일 아침에 당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내일 오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과 명령 속에서 정해진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 어디에도 ‘당신의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셋째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다.
- b. 당신의 인생 지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은밀한)뜻 안에 있는 수십억 개의 세부 요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우여곡절을 안고 있는 그 지도를 알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인도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좌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을 뿐이다.
- c. 모세는 그것을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d.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은밀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
- e. 반면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인도는 성경에 다 나와 있다. 말하자면 “나타난 일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관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사 결정을 잘하는 방법이다.
- f.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거나 논리적으로 암시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전부다. 우리가 성경과 일관된 결정을 내리는 한 우리는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2. 우리가 그 뜻을 안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a.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엿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안다 해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의도하시고 명하신 일들은 피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 나아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보여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비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다.

- b. 왜 그런지 궁금한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실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는 우리의 모든 도덕적 그리고 비도덕적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들도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뜻을 어기는 많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는 모든 역사속의 모든 사람과 천사들의 완고함과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다.
- c. 거기에는 아담의 죄,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화형당할 순교자들에게 가해진 잔인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뜻을 보여 주셨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을 보여 줄 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 d. 내일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당신이 특정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도 아닌 이유는 그러한 말을 해야 마땅한 것인지를 당신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하나님의 인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 즉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혐의 사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말이다.
- e. 성경은 인생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자가 된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 f. 기억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말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스터 플랜에 계획해 놓지 않으신 일들을 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된 도덕적 뜻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
- g. 성경은 인생의 모든 면과 관련된 행동 원칙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준비시켜 준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바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행동하기란 너무도 쉽다. 해석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리적 추론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 h. 롬8:28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에서 발췌, 피터 블룸필드, 성서유니온선교회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ㄴ

2.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성경말씀: 시119:105-112

지난주, 하나님의 뜻의 정의

하나님의 드러난 뜻(성경 말씀의 명령들)과 하나님의 숨겨진 뜻(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우리는 이대로 고백하고 이대로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드러난 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도, 숨겨진 뜻은 배후의 인도

겉으로 드러나는 인도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과 인도를 경험하는 것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모든 행동과 동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들어 있다.

요약: 십계명(출20),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마22:36-40)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의 예, 하나님의 판단, 찬성 및 반대, 책망과 경고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드러난 인도이다.

고전10:1-10

성경의 충분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수학, 물리, 의학, 공학 책은 아니다: 자동차, 발전소, 인공 지능 No!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기에 충분함

배후의 인도

롬8:28

하나님의 섭리,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내고 계신다.

우리의 경험이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다(옵).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다윗).

감옥의 요셉, 모세, 요나, 구덩이의 예레미야, 감옥의 바울과 실라

배후의 인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보이는 것들이 일어나도록 허용된다.

속이는 것, 거짓말,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나님은 이런 비도적적인 것들을 배후의 인도에 통합시킨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복을 위하여 섭리로 조절하신다.

섭리: Providence, Pro-video, 미리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섭리 과정을 결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드러난 뜻만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그것에 따라서만 의사 결정

섭리를 믿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롬6:1-2, 6-7, 11).

겉으로 드러나는 인도 말씀

시편 1편 1-2절

시32:8

시119:9; 105-106

배후의 인도 말씀

시31:3-5

시119:67, 71

하나님의 인도 예화

1. 결혼과 불순종

‘배후의 인도를 믿는다’의 위험: 그리스도인 여성

드러난 인도: 그리스도인, 남성, 유부남, 혈육 No!,

문제: 비그리스도인, 성경의 요구 사항(고후6:14)

다른 여인의 사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잘 산다.

그러니 나도 그리하면 안 되는가?

문제: 불신 남편이 회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안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롬6:1-2

1.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2. 어떤 죄도 복이 되게 한다는 기대로 그 일을 정당화 하면 안 된다. 이미 마음 자체가 틀림 이 경우 비슷한 죄가 반복됨

3. 무슨 주장,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내가 믿음을 버리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근거해야 한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창16:1-2), 이스마엘, 이슬람의 시작, 이삭

2. 가게를 차리는 일

약4:13-17

이윤을 얻기 위해 가게를 차리는 일은 나쁜 것이 아니다.

주제님은 가정: 합당한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함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드러난 인도에 따라 사업을 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체적인 결과를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즉 결정하는 데는 성경이면 되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함
바울 일행 행16:6-10

3. 조니 에릭슨 타다(1949년 10월 15일)

볼티모어, 우드론하이स्कool 졸업, 170

17살에 전신마비, 1967년 7월 30일, 체사피크베이에서 다이빙,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

현재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조니 영화, 전 세계 수백만에게 주님 증언

두려운 일, 남편 켄도 만나고 2010년에는 유방암 수술, 희망을 전하는 여인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불가능, www.joniandfriends.org

결론

결정: 자동차 대체, 이사, 아이, 확장 공사, 더 큰 집, 교회, 과목 수강

하나님의 드러난 뜻 안에서 하면 다 우리의 자유

그런데 배후의 인도도 있다.

의논

1. 마귀도 하나님의 법령적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잠16:4; 욥1:12; 유)

2. 주권적인 뜻에 의해 죄가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죄인들에게 변명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후5:10; 롬1:18-20).

3. 드러난 뜻을 가지고 유혹을 거절하는 사례(마4:1-13; 7:21-27)

4. 빌1:9-10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ㄱ

3. 좋은 결정 내리기

성경말씀: 잠3:5-6

지난주, 하나님의 뜻의 정의

하나님의 드러난 뜻(성경 말씀의 명령들)과 하나님의 숨겨진 뜻(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삶 자체가 수많은 결정의 연속: 명백히 드러난 성경 말씀 외에도 의사 결정 요소에는 기도, 이성적 판단,
믿음의 세 요소가 더 있다.

잠3:5-6, 솔로몬의 잠언, 믿음과 순종과 기도, 7절, 11절 연결

기도의 역할

좋은 의사 결정: 성경을 알고 원리를 이해한 뒤 행동하면 된다.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할까?

1.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의 각 부분을 전체 맥락에서 바로 이해해야 한다. 문맥과 장르(딤후2:15)

2. 결정을 내릴 상황들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혜와 분별력 요청

지혜: 균형, 우선순위 파악, 부차적인 일에 매달리기를 피해야 한다. 이로 인한 여러 결과들을 다루는
법을 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잘 대처하기 위해, 여러 대안 중 어느 것이 가장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

3. 성경에 복종할 수 있는 겸손과 영적 훈련을 위해서

성경의 명령이 나의 의사와 반대가 될 때 자기 부인,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은 무엇인가? 그런 결정이 내가 교회 안에서 유용한 존재가 되고 시간을
내서 섬기는 존재가 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결정의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모세의 경우처럼(출2: 행7:22-29), 특히 25절

4.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 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욥의 고백(욥1:21-22; 2:9-10), 바울의 고백(고후12:7-10)

5. 잠언 3장 6절의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의 의미

6. 기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의사 결정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경우 새로운 계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분과 말씀을 부인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들은 ‘지속되는 계시’를 간청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히1:1-2)

7. 기도는 성경 이외의 부가적인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직통 계시 요구 No!

딤후3:16-17 부인

이성적 판단의 역할

이성: 합리적인 사고, 이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1. 이성을 최소화하면서 이성이 요구하는 합법적인 자리를 내 주지 않는 것

성경을 문맥에 따라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40일 금식, 병 고침)
해석의 올바른 원칙들 무시, 학문적이며 합리적인 주석이나 설교 무시

“약이나 의사는 필요 없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속죄함에 치유가 있다(벧2:22-25). 그러니 ‘병아,
마귀야 나가라!’고 선포하라.”

2. 이성을 최대화시킴,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 의지,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다 가짜

처녀 탄생, 부활, 기적 등 모두 부인,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순수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단이 된다.

정통 교리들을 부인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나만의 특별 계시 혹은 해석 운운

3.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3:5)는 말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경고한다.

4. 하나님의 섭리에는 신비의 요소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a. 이성은 성경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한다. 성경의 문법적, 역사적, 문학적, 문맥적 요소들을 잘 살펴야 한다. 신구약의 분기, 사도행전 초기와 후기
- b. 예상치 못한 요인들을 염두에 두게 한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무조건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야곱의 말(창42:35-36), 요셉의 말(창50:17-20), 참담해 보였던 일들이 나중에 선으로 변하다.
- c. 자유를 제대로 다루게 해 준다. 부동산 구매, 수천 만 개가 다 내 선택,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더 좋고'의 문제에서 이성이 바른 역할을 한다.
 - a. 능력, b. 내 구매 한도의 집? c. 아니면 대출 얻어서 더 큰 집? d. 집이 싼 이유, e. 시골 혹은 직장 근처, f. 계단 있는 집, 없는 집
- d. 만일 단 하나의 뜻만 있다면 이성은 불필요, 숲에서 바늘을 찾는 노력

믿음의 역할

믿음: 신뢰와 확신

1. 기도와 이성을 사용해서 좋은 결정을 내림, 다른 것들은 맞지 않음. 이제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잠3:6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2.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 a. '좋은 것만 있으리라'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바른 길로 가면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 다니엘, 예수님, 바울, 믿음의 사람들(딤후3:10-12), 그러나 길이 올바르게 계속해서 가야 한다.
기독교는 손쉬운 인생을 약속하지 않는다.
바른 결정을 내려도 마귀가 역사한다. 우리의 성경 사역, 교회 사역
- b. 항상 화평을 약속하지 않는다. 여전히 의심과 회의가 든다.
올바른 결정은 항상 평안을 주는가? 아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다.
우리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늘 놓여 있다. 예배당 건축
그러므로 회의가 들어도 걱정하지 말라. 건강하다는 징조이다.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바울의 일생(고후1:8-10; 6:3-10; 11:22-27).

3. 믿음의 정의(히11:1),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배후에 하시는 일은 보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믿는다.

우리의 길이 굽어 있어도 주님이 곧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

즉 우리는 롬8:28을 믿는다,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결정들도 주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삼상2:30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은 우리의 뒤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겪은 뒤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한다.

사자 굴의 다니엘, 이 일이 곧바르다고 느꼈을까?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도하신다.

결론

의사 결정: 말씀과 더불어 기도, 이성, 믿음의 세 요소

이것들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롬12:1-2

잠16:9의 의미

히11:8의 의미

히11:9의 의미, 이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㉔

4. 하나님은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지 않으신다

성경말씀: 롬12:1-2; 시119:1-10

블룸필드 목사의 견해: 현시대 교인들은 ‘비현실적인 언어’ 즉 ‘미사여구의 종교적 언어’를 채택하여 평범한 내용을 신성하게, 과장되게, 상투적으로 진부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죽은 거인의 목을 베는 것보다 살아 있는 거인의 옥수수를 짓밟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러나 그것은 더 쓸모 있고 재미있는 일이다”(C. S. 루이스)

거인들이 종교적인 언어와 표현을 버려야 살 수 있다.

거인에게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

“내게 비전이 생겼다. 마음에 부담이 생겼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것을 계시로 주셨다. 나와 교회가 쳐야 할 짐이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에 마음을 열어 두고 있다.”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이 내게 혹은 이 일에 있다.”

특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어떻게 아느냐? 다양한 상황, 사건,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함

즉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단서들이라고 주장함,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메일 혹은 카톡 메시지 결론: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매일 이메일/카톡을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시지만 결코 직통 이메일을 주지 않는다.

이런에도 너무나 많은 거인들이 이런 반대를 격렬하게 저항한다(체험이 없어서, 뜨거운 기도, 방언 등) 사건인가, 단서인가?

교인들의 특성: 단순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서라고 생각함

이메일이 왔으니 그것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함, 이것은 위험하다.

블룸필드: 이 길로 들어서면 정통 기독교를 떠난 것이다, 주관주의, 불명료성의 바다로 항해하는 것

1. 불타버린 교회

교회 성도들의 증가, 예배당 문제: 1. 확장, 2. 부수고 재건축, 3. 다른 데 이사

비오는 날 갑자기 번개가 쳐서 건물이 불타, 소방관들 도착, 지붕, 벽은 망가졌으나 뼈대는 남음 다음 주 교회 회의: 1. “뼈대가 남았으니 여기에 남아서 확장하며 건축하라는 메시지”

2. “건물의 반이 탔으니 아예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재건축)

3. “미래가 이곳에 없다. 옮기라는 메시지”

4.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학교나 시청 강당을 빌리자” 이 모두가 주관적인 견해, 하나님의 이메일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무언가 해석을 내리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다.

홍수, 가뭄, 화재, 지진이 왜 생기는가? 아무도 모른다, 그냥 하나님의 신비이다.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 확실하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이집트의 재앙들 이런 것들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미국 호주, 강원도 산불: 대개 농촌, 그러면 농민들은 더 극심한 죄인인가? 홍등가, 도시 죄인들

2. 무너진 탑

눅13장의 예수님 말씀(1-5)

1.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들 학살

2.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 18명 사망

3. 주님의 말씀, 이들이 더 큰 죄인들이 아니다.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눅13:2-5).

4. 명백한 사실: 이런 것들이 무슨 단서가 되지 않는다. 주관적인 확대 해석 하지 말라.

3. 섭리의 신비

1. 전도서 11장 5-6절

2.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생각)를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3. 우리의 이해 영역 밖의 일

열린 문인가, 닫힌 문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린 문에 대한 사례들이 더러 있다(행14:27; 고전16:9; 고후2:12; 골4:3; 계3:8). 열린 문이 곧 하나님의 인도인가? 혹은 이메일 단서인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가? 대답은 No!, 열린 문은 바람직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좀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행14:27): 복음 전할 기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잘 이용하였고 그것을 보고하였다.

하나님의 열린 문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며 주시는 기회이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1. 바울이 들어간 열린 문(고전16:7-9)

에베소의 열린 문, 기회이지 하나님의 신호는 아니다.

에베소에 가기로 한 이유: 대적자들이 많다는 객관적인 사실, 즉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가 필요함.

2. 바울이 지나친 열린 문(고후2:12-13)

그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열린 문을 보고도 마음이 불편하였다.

이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그래서 엄중한 편지를 써서(고후7:5-8) 디도 편으로 보냄.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을 보려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 함. 그런데 그가 오지 않자 열린 문에도 불구하고 드로아를 떠나 디도를 만나러 마케도니아로 들어감

바울의 판단: 드로아에서 새 집을 짓는 대신 고린도에 세워 놓은 집을 위협하는 불을 꺼야겠다.

3. 목사의 경우: 여러 곳에서 청빙을 받을 수 있다. 다 열린 문이다. 그러나 다 갈 수는 없다.

4. 성경에 보면 닫힌 문에 대한 말씀은 없다.

바울의 경우 로마에 가는 문이 계속해서 닫혔지만 결국 그곳으로 가고야 말았다(롬1:13; 15:22)

양털 뭉치 내놓기?

사사기 6장의 기드온 이야기, 양털 뭉치(삿6:36-40), 타작마당: 이슬이 양털에만, 다시 땅에만 이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삿6:14)

국가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여 주신 긍휼, 어리석은 행동, 죄,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A라는 계획 실행: “하나님 특별 사건을 주십시오.” “6시 전에 전화벨이라도 울리게 해 주세요” “주말에 옛 친구가 방문하게 해 주세요.”, “라디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나오게 해 주세요”, “프로 야구에서 인천 SK가 서울 LG를 누르게 해 주세요. 그것을 신호로 알겠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인도 단서를 주기 위해 야구 경기를 바꾸시겠는가?

더 나은 팀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양털 뭉치 신호의 문제점: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서로 반대되는 신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비가 오게 해 주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야구 경기의 경우 둘이 비기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미성숙한 일들을 그만두어야 한다.

즉 살아 있는 종교적 거인들의 옥수수를 짓밟아야만 한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다 들어 있다. 딤후3:16-17

성경에다 거룩한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메일 혹은 카톡 혹은 교회의 전통 등을 붙이면 안 된다.

결론 및 상고

1. 성경은 신호를 찾지 말고 지혜를 찾으라고 한다(엡5:15-17; 약1:5-7; 잠2:1-4; 골1:9-10)
2. 하나님의 인도의 핵심은 성경에 의해 변화된 지성이다(시119:9-16; 롬12:1-2)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ㄷ

5. 수많은 결정 어떻게 할까?

성경말씀: 시119:29-32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일 결정을 내리며 산다. 휴가를 가면 예외일까? ‘거기서도 무엇을 할까?’ 결정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함정들을 피해야 한다.

신중한 철수가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 꼼꼼히 조사한 뒤 남쪽 회사의 소나타, 북쪽 회사의 K5 상태, 가격, 성능 등이 모두 맘에 든다. 이제 둘 중 하나를 정해야 한다. 최종 시승 소나타를 운전한 뒤 거의 그 자리에서 살 뻔하였다. 그런데 K5가 눈에 떠오른다. 다시 해 보기로 함 결정 조건: K5 운전 후 다시 소나타로 와서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뜻, 소나타를 사서 몰고 음이 안에 우리의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들어 있다. 자동차, 애완견, 집, 수강과목 등 선택 환상에 주의하라

환상: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환상은 일종의 심리 게임,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는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철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작은 실험 계획
2. 자기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함: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알 수 있다고 믿음
3. 환상의 규칙이 결과를 만들어내자(소나타가 남아 있음), 그 모든 환상이 환상이 아니라고 믿음
4. 그리고는 이것이 객관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5.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계획과 일치하게 만들려고 한 것도 큰 잘못, 그 뒤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함 철수의 잘못: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오해함

그는 처음부터 소나타를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음, 그가 사든 안 사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됨 주권적인 뜻은 사건 이후에 알 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사탄도 이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잠19:21

중고 자동차 구매:

1. 합법적인 자동차, 누구라고 이런 자동차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철수가 그것을 사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사기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2. 모든 조건을 보고 철수가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을 사면 어떤 차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3. 하나님은 이런 일로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

실제적인 교훈: 직업 선택

직업 선택 시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의사, 변호사, 교수, 목사, 대통령 등을 환상 속에서 그린다. 환상이 생기는 이유: 직업의 매력과 장점, 그런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

모든 직업에는 힘들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 아담의 저주(창3:17-19)

심리 구조: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환상이다.

의사: 의전원 등 기본 7년, 인턴 레지던트 잠 못자고 일해서 전문의가 된다. 33세 정도 되어야 직업 시술로 인한 법정 고소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앞에 놓여 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에 주의하라

뒤늦게 깨닫는 것이 큰 문제, 결정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사건이 일어나야 더 명확히 보게 된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의 의미

부주의함을 발견한 뒤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때 잘 생각했어야 했는데...”,

철수의 사례: 소나타 세일즈맨의 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너무 좋은데 주님이 돈이 필요해, 해외로 나가게 되어 마지못해 파는 것이다. 거의 타지도 않았다.”

가족 모임에 몰고 간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배터리 문제, 20만원

굴러가지 않아 역지로 밀다가 보니 엔진 컴퓨터 고장, 40만원, “뭐 그럴 수도 있지”

몇 달 동안 여러 이유로 자동차 수리

자동차 차이어 편마모 현상, 수리비 40만원, 온도 조절 장치, 엔진 과열, 실린더 헤드 수리비 120만원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창이 망가짐, 30만원

수리 다음날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가구 트럭이 받음, 3주 동안 수리, 두 달 동안 문제없음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난 지 이틀 뒤에 차가 멈춤, 변속기 고장, 300만원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더라면.....” 죄의식

1.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자기를 괴롭혀도 소용이 없다.
2. 다른 선택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 K5를 샀으면 괜찮았을까? 중고가 아니라 새 차면 괜찮았을까? 아예 안 사고 버스를 타고 다녔더라면 괜찮았을까?
3. 죄 의식의 끝은 어디인가? “만약에”라는 길에 들어서면 끝이 없다.

“부모님이 더 부자였더라면, 수학을 더 잘했더라면, 대학을 마쳤더라면,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더 좋은 교회에 다녔더라면, 그때 아프지 않았더라면...”

4. 이것 자체가 죄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옳고 책임 있고 사리에 맞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신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5. 잘못을 발견하였으면 교훈 삼아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바르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6.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명심
7. 뒤늦은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을 보장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8.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였다. 좋은 대학, 직장, 이것이 그의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일까?
학문적 재능 있는 사람은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다. 의사, 교수가 되었다,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결정을 내린 이후에 역경과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이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일까?

예수님의 겹세마네 결정, 십자가 처형, 다니엘의 바른 결정, 사자 굴, 순교자들의 바른 결정, 화형 사도 바울, 행20:22-24, 결국 예루살렘, 가이사라(행21:10-11),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 선포 히11:32-39, 좋은 결정, 고생, 그러므로 결정 뒤에 일이 안 풀린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말라.

주관주의에 주의하라

인생에는 주관적이 측면이 있다: 느낌, 갈망, 기호, 선호, 감정, 육감

성경은 사람마다 이런 점에서 다 다름을 인정한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끼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그저 그렇게 느낄 뿐이다.

느낌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다. 이것 역시 잘 판단해야 한다.

1. 신비주의자 콤플렉스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느낌이었다.”, 무언가 작은 단서들, 하나님의 인도라는 느낌

특징: 본인들은 단서에 민감하다. “나는 이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해야 한다.

철수의 경우: 소나타가 K5보다 더 좋게 느꼈다(색깔, 모양, 소리 등). 끌린 것은 사실이며 이유는 잘 모른다. 다만 이것을 택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하지 말라.

그것은 다 철수의 감정 혹은 느낌이다. 이런 것을 단서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이 자동차 색이 좋아. 소리가 좋아, 이게 더 편안해, 그래서 이것을 결정했어.”

2. 순교자 콤플렉스

주관주의의 문제, 선교사 지원, 두 자리 공석: 하나는 유럽, 하나는 가난한 나라

이때 순교자 정신 발휘: 무조건 어렵고 힘든 데를 택해야 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무조건 더 큰 희생을 택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면 죄의식을 느낀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고생하기만 바라는 무서운 분인가? 혹시 유럽에서의 필요가 가난한 나라에서의 필요보다 더 내게 맞지 않는가?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웨스트민스터 고백).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16

6. 느낌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계시와 체험의 차이)

성경말씀: 고전2:6-16

현시대 광고: “이 느낌 끝내준다.”, 자동차, 커피, 핸드폰 등, “느낌에 따라 행동하라”

많은 구매는 느낌에 의해,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낌에 따라 행동한다.”

모든 선택에는 느낌이 동반된다. 그러나 감정은 객관적 사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중고차가 매끄럽게 움직이니 좋다고 살 수는 없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차를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느낌은 안 좋아도 차는 좋을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이 아니라 느낌에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두 가지 오해 때문에 발행한다.

1. 성령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 2.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 드러난 인도, 숨겨진 인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이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딤후3:16)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신다. 벴후1:20-21, 벴후1:16-19

성령님은 인간 저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경 기록 저술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보호하셨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부른다.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주시는 것(고전2:14)

우리의 고백: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충분히, 포괄적으로 보여 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6항: 성령님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그 어느

때든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더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다(요14:16-17). 이것은 위로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다양한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성령님은 돕고, 경고하고, 보호하고, 힘을 주고, 동기를 주고, 회복시키고, 격려하신다(롬8:26).

이것은 성령님이 자신의 뜻과 말씀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끝났다.

이것은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즉 전자는 그리스도인의 인도이고 후자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다.

인도는 단일하고 규범적이다. 동일한 계시에 따라 단일한 틀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며 산다.

체험은 다양하고 비규범적이다. 모두에게 다 다르다. 고전12:28-30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 야곱의 씨름,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변화산 체험, 120명의 오순절 체험, 바울의

다마스쿠스 체험, 웨슬리 및 무디의 체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 모두가 동일한 것 체험 불가능

이런 경험들은 소중하고 실제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아니다.

이런 체험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체험과 인도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체험에는 언제나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유익을 끼치려면 말씀에 의거하여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체험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생생하고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후5:7).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다. 좋은 일, 즐겨라,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 따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숨겨야 할 때가 있다. 영적 우월감 No!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주의해야 한다. 우월감, 체험 강요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르다.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체험도 다르다. 그래서 위험하다.

중고차 구매: 같은 차를 두고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느낌, 사실 자동차는 같지만 사람의 느낌이 다른 것이다. 어쩌면 기계적인 것들을 모르기에 나오는 반응
평이 좋지 않은 자동차도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 대접을 받는다.

디젤차: 소음이 크다. 그러나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토크가 커서 매우 좋다.
나는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차를 사고 싶다. 조용한 것을 원해서

4륜구동: 연비가 떨어진다. 그러나 나는 그런 차가 좋다.

즉 사용자의 운전 습관과 용도에 따라 같은 차라도 호불호의 느낌이 있다.

중요한 것: 느낌은 그냥 느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의 감정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 교회를 접고 광으로 선교사, 느낌이 좋다. 1달 뒤 취소
많은 경우 느낌은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인도가 아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생각, 비전, 꿈 등은 주관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유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인도)는 아니다. 많은 경우 무익하다.

이에 대한 증거

딤후3:1, 감독의 자격과 조건과,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 감정

그러나 그 뒤에는 객관적인 조건들이 따라온다(2-7). 집사도 마찬가지(8-13)

또한 열망과 자질이 있어도 꼭 목사가 될 필요가 없다.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렇게 결정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다.” 즉 거룩한 결정에는 늘 화평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롬5:1의 하나님과의 화평은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법적 지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이것은 칭의와 자녀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화평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100% 맞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창21, 이삭의 출생, 이스마엘의 희롱, 내쫓음, 근심거리 11절)

롬5:1,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평화의 상태, 정죄받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대개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요나의 예: 하나님의 성도, 복음 전도자, 다시스로 도망, 고래, 지옥, 부활, 니느웨에서 복음 선포,
도시 멸망을 보려고 자리를 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자 화를 냄

적어도 30만 명을 구원한 대부흥사(아이만 12만 명), 그는 신자로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내 화를 내고 평화를 느끼지 못하였다.

명령에 불순종해서 배 밑으로 들어가 잠을 잠, 폭풍우, 자기를 던지라, 다시 살아나서도 주님 불평,
불손한 태도, 그런데 전혀 화평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

종교적 협박

교회 중요 결정 회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

이것은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은근한 협박이다.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말이다.

대개 겸손과 깊은 영성의 표시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교만한하고 거만한 태도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따라야 한다고 은근히 협박하는 것. 그러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사례 1: “아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요가 생긴다. 그대로 수용하면 계급의 구분
생긴다: 전달자와 수용자,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를 자기 식으로 표현한 것

방언 통역: 다 다르다. 심지어 성경 해석도 다 다르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게 부담을 주셨다”=“무척 염려가 된다”, “큐티에서 말씀을 주셨다”=“성경의 진리가 나를 찔렀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나 목사(사모)가 하면 더 큰 문제,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종: 모든 것 좌지우지 No! 사도 바울(행16:16-18)

결론: 느낌, 감정은 좋은 것 그러나 말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마귀는 항상 감정을 부추겨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끈다(살후2:9-12; 요일4:1).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ㄱ

7. 성경은 어떤 책임가?(위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성경)

성경말씀: 딤후3:14-17

현시대 교인들의 특성: 감정주의, 주관적 느낌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 팽배

그 이유: 성경에 대한 이해와 확신 부족, 구원 교리 등만 가르치며 실생활과는 상관이 없다.

특별 계시 운운하는 일, 초대 교회부터 진행되어 왔다.

교회사: 신비주의 초기 몬타누스 파, 17-18세기 경건주의, 모라비안/퀘이커 교도들, 항상 있어 왔다.

해결책: 성경에 대한 교리(성경은 어떤 책임가?)의 풍성함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

우리는 신조나 교리 등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좋은 것을 부인할 필요도 없다.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자들의 외침 :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3-1647년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교회의 교리적 통일과 신앙 일치목적으로 영국의 의회에 의해 소집된 신학자 총회에서 마련되었다. 그 후 일부가 수정되고 성구(聖句)가 추가되어 1647년 스코틀랜드에서, 1648년 영국 의회에서 인준받았다. 전문은 33개 장으로 되어 있고 1장이 성경에 대한 것이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어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알리기를 기뻐하셨고,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惡意)에 대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동일한 것을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일로 인해 성경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용된 성경구절은 모두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다.

여기에는 하나님 자신의 뜻이 3번이나 나옴: 즉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성경의 뜻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3가지 중요 원리

성경은 유일무이하다(유일무이한 특별 계시)

A. 계시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함.

1.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 2.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B. 하나님의 계시 방법(히1:1)

1. 천사들을 통해서(창18, 아브라함, 이삭 탄생 예고, 단9 가브리엘), 2. 큰 소리로(창3:9-19, 아담에게, 렘1:4-5, 예레미야), 3. 작은 소리로(왕상19:11-12, 엘리야), 4. 자연을 통해서(시19:1-3), 5. 나귀의 입을 통해서(민22:28), 6. 꿈으로(창28:12, 야곱, 마1:20 요셉), 7. 이상(vision)으로(사6:1-6, 이사야, 행9:10 아나니아), 8. 우림과 둠뎀으로(출28:30, 민27:21), 9. 제비를 통해서(레16:8 속죄 염소, 행1:26, 맛디아), 10. 주의 천사: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현현으로(창32:24-30, 야곱, 삿6:11 기드온), 11.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C. 일반 계시: 웨스트민스터 고백의 표현,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

1. 범위의 일반성: 모든 사람에게 도달함.

2. 방법의 일반성: 사람 속의 양심과 하늘의 해, 달, 별 등을 다 포함함.

3. 신학상의 자연성: 어떤 것을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자체와 사람.

4. 일반 계시의 내용

- a. 하나님의 영광(시19:1), b. 하나님의 권능(시19:1), c. 하나님의 뛰어나심(롬1:20),
- d. 하나님의 선하심(마5:45), e. 하나님의 지성(행17:29), f. 하나님의 존재(행17:28)

5. 일반 계시의 제한성: 일반 계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곧 사람의 죄성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6. 일반 계시의 가치

- a.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보여 줌.
- b. 일반 계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줌.
- c.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줌: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과 진리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심.

D. 특별 계시: 웨스트민스터 고백의 표현,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1. 정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 a.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친밀히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계시임.
- b. 성경은 모세시대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1600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 - 왕, 농부, 어부, 의사, 정치가, 학자 등 - 이 기록한 ‘한 책’(One book)이다.

성경은 인쇄물로 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惡意)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동일한 것을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 안에서 감지되는 계시의 음성이 아니다. 개인에게 맞춤 재단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이에 잉크로 기록된 인쇄물이다. 모두가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동사와 명사, 주어와 술어, 구와 절, 질문과 감탄, 경고와 격려, 비유와 서사, 잠언과 시편, 역사와 모형(예표)론, 점호 획, 전치와 대명사 등이 적절하게 배열된 책이다.

모두에게 공개된 공적 자산, 누구라도 엄밀하게 조사할 수 있다. 가장 엄밀한 비판을 받은 책

즉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실체가 있으며, 알아볼 수 있고 인쇄된 제작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통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멈추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특별 계시 자체가 멈추었다. 즉 더 이상 계시될 뜻이 없다. 충분하고도 충분하다.

성경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 계시가 멈추었다. 이전의 방식들이 멈추었다(히1:1).

즉 대언자, 꿈, 이상, 나귀, 우림과 둠뭇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더는 대언자가 없다(계22:18-19).

“왜 하나님을 제한하느냐?” “지금도 성령님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요16:13)

이 모든 진리는 또 다른 계시들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를 뜻한다. 특별 인도가 아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더는 계시가 없고 성경만으로 충분하기에 사실 더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대언자, 방언, 사도, 병 고치는 선물 등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유효하고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쇄된 성경 외의 다른 추가 계시를 구하고 있다(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로렌스 형제, 예수 전도단 등).

추가 계시는 이단들의 일: 안식교 엘렌 G. 화이트, 여호와의 증인: 찰스 테이즈 러셀, 몰몬교: 브리검 영, 통00, 신00, 안00 등 모든 사이비 종파에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는 오직 성경만이 최종 계시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날의 오순절/은사주의는 추가 계시를 요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딤후3:16-17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맘

8.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 말씀하셨다

성경말씀: 딤후3:14-17

지난 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 성경은 유일무이한 특별계시, 2. 하나님의 뜻은 성경책이다. 3.

성경은 이제 멈추었다. 다른 계시가 없다. 누구라도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의심이 문제이다.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여름이 되면 가족 여행, 미국의 경우 하루에 보통 8-900 킬로미터

워싱턴에서 남쪽의 플로리다 주의 올랜도(디즈니월드), 보통 2-3일 운전해야 갈 수 있다.

드디어 아이들을 태우고 간다. 목적지 올랜도, 도시와 산과 강을 지나며 간다. 이정표들이 나온다(95번).

올랜도는 처음에 안 나온다. 가까이 가면 드디어 올랜도가 많이 나온다. 드디어 이를 내내 운전해서

올랜도에 도착함. 멈추어 섰다. 더는 이정표 불필요. 엔진을 끄고 브레이크를 밟

그런데 갑자기 아빠의 말 “우리는 이 여행길에 익숙해 있어. 날마다 새로운 표지판을 보는 게 좋아.

며칠을 이렇게 해 오니 설 수가 없네. 올랜도가 목적지가 아닌 것 같아. 우리 계속 차를 타고 가자.”

그리고 아빠가 계속해서 차를 몰던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목표 자체가 무의미

성경의 계시가 이 휴가 여행과 같다.

초보적인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그림자에서 실체로, 약속에서 성취로, 씨앗에서 나무로 순서 있게 발전해 나간다.

반대로 가는 일은 없다. 과녁을 향해 나가는 화살과 같다. 그 과녁 혹은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구약의 대언자, 선지자, 역사가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킨다(눅24:44, 요5:39; 히1:1-2).

예수님 이후에는 더 가면 안 된다. 그분이 목표이다.

하나님은 주교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이미 다 주셨다. 계22장으로 끝을 내셨다.

하나님의 말씀(막9:7),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또 다른 계시는 없다.

이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계시를 바라면서 더 운전해 가면 오히려 목적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사의 말(5:12-14), 교회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정점이다. 거기서 벗어나면 다 내리막길, 왜 꿈과 환상과 대언자로 돌아가려는가?

이미 우리는 성경이라는 오성 호텔에 들어와 있다. 모든 것 완비(딤후3:16-17)

성도의 태도: 성경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쉬거나 계속해서 찾거나 둘 중 하나

계22:21절이 마지막인가? 거기가 브레이크를 걸 지점인가? 더 나아가는가?(이 경우 매일의 만나) 만나는 40년 뒤 그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이후의 만남은 유통 기간이 지난 불량 식품 맹목적 신앙이 문제이다.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분들의 무제: 주관주의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모두 주관적인 주장, 증명할 수 없다. 왜 믿어야 하는가?

구약 시대 대언자들의 경우 표적과 이적이 함께 하였다(신18:20-22), 모세, 엘리야, 엘리사 등

신약 시대 초반 계시의 완성 전에는 표적들과 기적들(히2:1-4), 사도의 표적(고후12:12)

지금도 하나님은 큰일들을 하시지만 그것들은 성경적 의미의 표적이 아니다.

책과 질의 대화

불에는 불로 맞서야 한다. 맹목적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피할 수 있다.

추가 계시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

계시는 소중한 물건이므로 하나님은 분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셨다. 그 결과 문자로 기록하셨다(인쇄물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알리기를 기뻐하셨고,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惡意)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동일한 것을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일로 인해 성경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말은 ‘전체를 문자로 남긴다’는 말이다.

구약시대에는 구두 계시, 그 이후에 문자 계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안의 내용보다 더 많다(요20:30-31),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보존되지 않은 말들의 핵심 가치는 보존된 것들 안에 다 들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영감만 이야기하고 보존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as it is written, 마4:3-4, 신8:3

우리는 지금 6000년 전에 에덴동산에서의 대화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보존

시12:6-7, 마24:35

성경은 단 한 권이다. 여러 사람들의 직통 계시를 모으는 사람은 없다. 그들의 모든 계시를 교회가 연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직통 계시, 모으면 금세 성경 한 권, 그런데 왜 보존되지 않는가?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므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존하지 않는가?

1. 그들의 교만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직통 계시를 받는 대언자, 신중한 사람, ‘자기의 계시는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입증한다’. 이 경우 그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할까? No!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신실한 목사들이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목사들은 자랑하지 않고 하고 그는 자랑하면서 한다. 이리 되면 그들은 해설자지 계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계시자라고 하므로 교만한 자들이다.

2. 오류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자기가 말한다고 하는 자들, 이들 역시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결국 자신이 틀렸고 어리석고 추측으로 말하는 자임이 입증될 것이다.

인터넷 시대, 북한 침입, 기도하라, 얼마 뒤 사실 아니면 곤경, 지금도 버젓이 나와서 예언 여호와의 증인: 세상 종말, 1874년, 1914년, 1925년, 안식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재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짜 예언, 다 틀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외에 추가 계시가 날마다 오고 있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결론

1. 브레이크 설정(히1:1-2)
2. 맹목적 신앙(주관주의)을 버려야 한다.
3. 추가 계시는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ㄹ

9. 바이블 코드와 하나님의 뜻

성경말씀: 딤편1:1-11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 적인 것을 가르친 일이 있었다(딤편1:3-4). 7절을 보라.

눈먼 인도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인도, 바이블 코드

1. 1997년에 영지주의 신봉자, 기자 마이클 드로스닌의 <바이블 코드>

2. 2001년, 래리 미첨, <바이블 코드에 있는 9.11>

미첨의 주장: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보는 것은 표면적 혹은 평범한 텍스트, 그 이면에는 암호로 감추어진 은밀한 안건이 있다. 실제로 이것들은 컴퓨터로 만들어 낸 단어 게임, 그리스도와 무관

바이블 코드 1

1984년 마이클 드로스닌(Michael Drosnin), 수학 저널의 한 논문, '등거리 글자 배치' 암호 컴퓨터를 사용해서 성경을 관찰해 보니 이스라엘 수상 잇자크 라빈의 암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예측하는 암호화된 예언들이 있다. 무작위로 배합된 히브리어 문자들, 가로로, 세로로, 사선으로 배합됨 "우리는 성경을 항상 책으로 생각해 왔다...그러나 성경은 컴퓨터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과거의 일, 앞으로의 모든 일이 모세5경 즉 토라에 다 들어 있다."

이 방법을 쓰면 오클라호마 주 청사 폭탄 설치자의 이름, 전구의 발명, 라이트 형제, 윈스턴 처칠, 아인슈타인 등을 찾을 수 있다.

바이블 코드 2

래리 미첨(Larry Mitcham)도 비슷한 기법, 클리포드 윌슨의 개인 정보가 성경에 다 들어 있다. 사별한 첫 번째 아내의 이름 에이비스, 네 자녀의 이름(부루스, 일레인, 데이비드, 리네트), 아버지 이름(윌리엄 루카스 윌슨), 어머니 이름(이사벨), 출생지(호주의 시드니), 두 번째 아내의 처녀 시절 이름(바바라 조안 배들리) 등 결론: 모두 그의 주관적인 해석

이름이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시드니, Sydney

이 페이지에서 한 글자, 다음에서 한 글자, 자기 나름대로의 배합에 의해 결국 시드니가 나온다. 그의 말: "바이블 코드에서는 한 단어를 입력하면 등거리 연쇄 배합이 적게는 하나에서부터 수천 개나 가능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글자도 뛰어넘지 않게 두면 그냥 성경이 되는 것이다.

여러 개로 별려 놓으면 자기가 찾는 글자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가 찾았다고 하는 단어들: 2001년 말, 탄저균, 세계, 무역, 센터, 테러, 소방수, 아프간, 9월 11일, 대통령 조지 부쉬, 오사마 빈 라덴, 뉴욕, 탈레반

뉴욕: 시편 72:10은 New라는 단어의 출발점, 시편 68:13은 York의 출발점

이 두 지점 사이에 97개 구절, 조합하면 New York이 나온다.

이들은 히브리어를 철저히 악용한다.

다윗, 모세, 말라기가 뉴욕이나 9.11테러에 대해 기록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말이 된다.

반론

1. 이런 등거리 글자 배치 게임은 어느 정도 두께의 책이라면 다 가능하다.

도대체 등거리 간격은 누가 정하는가?

2.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표면적인 본문은 중요하지 않고 암호만 찾아야 한다.

성경 해석: 저자, 배경, 수신자, 앞뒤 문맥, 명사, 동사 시제, 수동태, 능동태, 단복수, 정관사 등

3. 예수님의 예를 보라. '기록된 바'이지 암호화된 바가 아니었다(마4:4, 7, 10). 구약성경 인용, 문자 그대로

4. 바이블 코드는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끌고 간다. 그리스도 중심에서 예측으로

6. 성경은 인류 구속 이야기, 예측이 아니다. 딤편3:16-17을 기억하라.

7. 실제 성경의 정확성을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정확성을 말하라.

다빈치 코드

교사 출신의 미국 작가 댄 브라운(Dan Brown:1964.6.22~)이 쓴 스릴러 소설이다. 내용은 루브르미술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계기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 등에 숨겨진 암호를 풀면서 그리스도교를 둘러싼 비밀에 접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미국에서 50주 이상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들었고, 약 7백만 부가 팔렸다. 한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판권 계약을 하였고, 10여 개 나라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위험성,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들(교부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의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거요”(1권 360쪽).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란 말일세, 신의 작품이 아니고. 성경은 구름에서 기적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야. 격동의 시기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기록이지. 그리고 그것은 수없이 많은 번역본과 첨가,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진화해 온 것이라네.”(1권 354쪽).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위상 수립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투표’에 부쳐진 거였다오”(1권 357쪽). “그 당시 여든 개 이상의 복음서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 하지만 오직 몇 개만이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도록 뽑혔다네”(1권 355쪽). 이러한 논쟁은 일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1. **바이블 코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그것을 알면 미래 예측 가능하다.

현재는 드로스닌의 바이블 코드 3이 있다. <세상을 구원하기>

바이블 코드로 현 시대를 예측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신비주의

한국식 바이블 코드: 신천지

본인들만 성경을 알 수 있다. 마13장,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 9개나 나온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10-11, “10 제자들이 나아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암호를 풀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신천지의 핵심 구절: 13:34-35

34,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without a parable)”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렸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신천지 주장: 비유가 아니면, 즉 모든 것이 비유이다. 본인들만 비유를 알고 있다. 개역, 개정, 공동, 바른,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모두 ‘비유가 아니면’, NIV: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without using a parable)

신천지 주장: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천국비밀(천국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신천지 약속의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은 초림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비밀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밝히 일러주는 때가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언제까지나 비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밝히 열어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져 나타나고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그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시니 이 증거가 신천지의 핵심 교리이며 천국의 비밀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전하는 천국복음의 핵심 교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장래사의 대부분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다
그 중에서도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은 그 때로부터 약2천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과천시 소재 청계산

아래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아직 추수가 다 끝나지 않았으므로 신천지에서는 열두 지파 14만 4천 명을 인치고 있다
 그 후에는 예언대로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모여 올 것이다.
 오늘날 추수하여 창조한 영적 새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여
 구원 받을 수 없다
 신천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신천지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과 실상을 값없이 육하원칙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다만 실상을 말할 때 교명과 인명은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성경에 비유된 인명과 지명으로만
 말하고 있다
 신천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신약의 예언을 깨달아 그 실상을 확인하고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인 맞고 생명책에 녹명됨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알린 바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보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결론: 암호화된 성경을 신천지만 풀 수 있다. 루터, 칼빈, 스펀전, 에드워즈, 무디, 매튜 헨리, 웨슬리,
 로이드 존즈, 존 파이퍼는 풀 수 없다. 오직 신천지만.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1.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2. 요한계시록 7장의 이마 안에 봉인을 받은 자들(4-8):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144,000이 기독교의 이긴 자들이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여호와와 그의 증인들 사도 요한의 이긴 자는 성도를 말한다(계2:7, 17 등의 이기는 자는 요일5:4의 이기는 자이다)
3. 한국이나 미국을 끼워 넣는 해석을 하면 아니다. 성경에는 한국이나 미국이 안 나온다. 아리랑 민족, 단군은 다 지파이다. 동방의 독수리 등이 나오면 다 거짓말이다.
4. 하나님의 인도는 정신 차려 성경을 읽고 그 조명에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5. 렘23:29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10

10. 결혼과 목회를 위한 의사 결정

성경말씀: 롬14:1-8

9번에 걸쳐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Peter Bloomfield,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니는 이유: 의사 결정, 인생은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따라 자유롭게 해라.”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행동이 그것 자체로는 정당해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성숙함이 나와야 한다. 고전6:12 참조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려 한다. 양심의 가책, 결혼, 복음 사역

1. 의사 결정과 양심의 가책

롬14장: 바울은 아주 예민한 성도들에 대해 말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양심에 가책(음식, 날 등) 복음과 상관없는 문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일, 양심이 연약한 분들은 여기에 넘어진다.

여러 가지 규칙: 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마시면 안 된다. 입으면 안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이것도 고려해야 한다(롬14:21).

즉 누군가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그를 배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리하라는 말이다.

돼지고기 혹은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고기를 주지 말라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경우는 그렇게 하여 화평을 이루라는 말이다.

즉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알려졌으면 참으라.

즉 미성숙한 분들이 양심 문제로 쓸데없는 것을 교회에 요구하면 참으면 안 된다.

2. 의사 결정과 결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많다.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결혼은 평생 함께할 사람과의 약속, 그러므로 믿음이 맞는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다.

인성, 교육, 문화, 자라온 환경 등: 60 이후에도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결혼 생활은 서로 보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다. 차이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둘 다 까칠하면 쉽지 않다. 한 사람이 유하고 한 사람이 강하다. 차이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다.

아무도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는가?

다만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에 따라 감정이 맞는지 그른지 판단해야 한다.

잘못 오용되는 말씀(창24:12-20):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아내

혹시 상황에 맞는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브라함의 종의 시험(창24:12-20)

그 결과 리브가는 모든 것을 충족하였다. 이삭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이리하면 감정 통제가 되고 복잡한 문제가 단순화되지 않는가?

유의할 점: 이것은 규범적 본문이 아니라 묘사적 본문

무엇을 묘사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일반적인 결혼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특별히 섭리로 그를 이끄시는 것 묘사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 약속(창15:5), 아들 필요(이삭), 그에게 아내 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남자’가 아니다. 언약의 후계자, 그래서 그의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언급(24:7, 27)

아브라함의 확신(7, 40),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오늘날의 우리는 아브라함 경우와 다르다.

종을 보내고 물로 시험해서 결혼하게 할 부모가 어디 있는가? 결혼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3. 의사 결정과 복음 사역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 선교사, 목사의 아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블룸필드 목사: 전임 사역자, 신학교 들어가는 것이 생의 가장 큰 결정 중 하나

그 뒤 여러 사역자 후보들 면접, 평가, 검토

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어떤 사람은 사역자보다 성도로 섬기는 것이 더 낫다.

교회의 걸러 내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로이드 존스 목사도 마찬가지

모든 후보들의 공통 감정: 하나님께서 본인이 복음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내적 열망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열망이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 고려 사항들을 지배해 버렸다.

이러한 감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심사자가 다른 견해를 말하면 감당하지 못하였다.

일단 목사에게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 지정의의 복합체

목사의 경우, 한두 사람의 경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준이 되면 안 된다(무디, 웨슬리 등).

어떤 분들은 강하게 주관적인 열망을 느낀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전통으로 자리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그런 경험을 소유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받는다.

시기, 강도(오직 이것), 명확한 정도(무슨 체험 같은 것 등)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은혜를 사람에게 드러내신다. 뜨거움이 넘치게 된다. 체험적 신앙

무디와 같은 성령님의 충만함. 말씀을 읽으며, 고난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르면 안 된다.

모든 감정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가”(어떤 규칙)

웨스트민스터 고백: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즉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무어라고 말하는가?'이지 감정이 아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혹은 생각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교회에는 목사가 필요하다. 내적 부르심의 구절(마9:38; 요21:15-17; 행20:28; 롬10:15)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된다.

교회에 다른 선물도 필요하다.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돕는 자, 구제하는 자, 여기에는 감정이 없다.

우리는 모두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목사, 정치가, 교사, 전업 주주, 예술가

그런데 목사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딤후3:1 목사의 직무를 사모하면 좋다. 맞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의 자격이 나오지 않는가?

가르치는 자질, 말하는 기술, 은사, 너그러움, 성숙함, 결혼하여 가정을 치리함, 초신자는 안 됨.

더욱이 신학 공부를 소화할 수 있는 지적 능력, 글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능력

그러므로 본인 자신의 내적 열망 하나로 목사가 될 수는 없다. 객관적인 검증

구약시대 요나, 예레미야 등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다. 초대 교회 이후 성숙한 교회 시대

목회자는 교회가 선정한다. 그래서 규정을 주셨다(딤후3, 딤후1)

구약처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는다. 내적 열망을 그런 부르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목사에 관한 한 오늘날 하나님의 유일한 부르심은 교회가 목사로 부르는 것 외에 없다.

누가 할 수 있어 부름을 받아도 안한다고 할 자유가 있다.

신약 성경의 부르심은 단 2개: 구원으로 부르신다. 섬기는 일로 부르신다. 목사, 집사, 세상 일,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고백 확인